

# 초반 순항 '프로듀스48'... '사쿠라듀스' 비판은 해결과제



### CPI 지수 2위 · 시청률 2% 돌파 화제성 입증 특정 연습생에 쏠린 방송 분량 등...보완 필요

달 15일 방송을 시작한 '프로듀스 48'은 1.1%(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의 시청률로 출발선을 끊었다. 이후 22일 방송된 2회 시청률은 1.9%로 상승했고, 29일 방송된 3회로 2%대의 벽을 넘었다. 또한 엠넷에 따르면 CJ E&M의 콘텐츠 플랫폼인 티빙과 엠넷닷컴을 통한 실시간 방송의 최대 동시 접속자는 약 3만 5천 명(3회 기준)이 넘었다. '프로듀스 48'은 지난해 방송된 시즌2와 비슷한 시청률 상승폭과 높은 화제성을 보여며 방송 3회 만에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한 모습이다.

'프로듀스 48'의 포맷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방영한 시즌, 2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청자들이 직접 '국민 프로듀서'가 되어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할 멤버를 선발한다는 기본 줄기가 같고, 등급 평가, 그룹 배틀 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흐름도 동일하다. 이 점에서 이전 시즌들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한 모습이다. 앞서 '프로듀스' 시리즈의 대박 이후 엠넷 '아이돌 학교', KBS2 '더퀸', JTBC '믹스나인' 등 유사 프로그램이 잇달아 탄생했으나 흥행에 실패한 것과 달리 '프로듀스 48'은 성공기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로듀스 48'은 시청자들이 기시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화를 줬다. 바로 일본의 유명 걸그룹 AKB48 시스템과의 결합이었다. 엠넷은 '프로듀스 101'의 기존 시스템에 진용 극장에서 상시 공연을 하고 팬들과 만나는 AKB48 시스템을 얹어 한일 양국에서 활동할 12인조 걸그룹을 제작한다는 이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시도를 감행했고 이 전략은 적중했다.

사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AKB48 소속 참가자들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공연하거나 육일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전장을 미화하는 연출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우익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경쟁력 있는 K팝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굳이 일본에 전수할 필요가 있는지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이에 제작진은 방송 초반 시청자들이 일본 연습생들에 대한 편견을 떨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줬다. 1회에서는 한일 양국 아이돌 산업의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연습생들에 비해 기본기가 떨어지는 일본 연습생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후 2회에서 반전을 줬다. 실력이 한참 부족했던 일본 연습생들이 주제곡의 한국어 가사까지 외우며 열정을 보이고 점차 부족한 실

력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그린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연습생들을 향한 시청자들의 부정적 시선을 긍정으로 모두 바꾸지는 못했어도 일부 바꾸는 데는 성공한 분위기가 있다.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일 연습생들의 우정을 아름답게 풀어내는 방식도 효과를 봤다. 연습생들이 언어의 장벽을 뚫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이전 시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면 서로 제작진은 엠넷 서바이벌 특유의 긴장감 있는 편집의 묘미를 그대로 살렸다. 그룹 배틀 평가가 그려진 3회부터 그러한 편집이 강화됐는데 '센터' 자리를 놓고 '가짜'를 펼치는 연습생들의 모습이 비호감에 다뤄져 이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우익 논란'이 잠잠해지고 일본 연습생들에 대한 반감이 차차 사그라드는 사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분량 논란'이다. 특정 연습생에게 분량이 집중되는 문제는 이전 시즌이 방송될 때도 논란거리였던 부분인데 이번 시즌은 그 정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심에는 AKB48 총선거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인기 멤버이기도 한 미야와키 사쿠라가 있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단체곡 '넌내꺼'의 '센터'를 차지하며 주목받았던 연습생인데 방송 초반 분량이 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단순히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서사가 미야와키 사쿠라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프로듀스 48'이 아니라 '사쿠라듀스 48'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3회 이후부터는 CJ 계열 스톤뮤직 소속 장규리의 분량이 점차 늘어나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분량은 곧 투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분량이 적은 연습생을 응원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힘 빠질 수 있는 지점으로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종반까지 꾸준한 관심을 얻길 바란다면 향후 이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프로듀스 48'에서 '국민 프로듀서'가 '픽'한 연습생들은 한일 합작 걸그룹 멤버로 선발돼 한일 양국에서 데뷔한다. 앞서 시즌1,2를 통해 결성된 아이오아이(I.O.I)와 워너원이 11인조였던 반면, 멤버수가 1명 더 늘어난 12인조 걸그룹이 탄생한다. 계약 기간도 늘어났다.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의 활동기간은 각각 8개월과 1년 6개월 정도였는데 이번 시즌을 통해 만들어진 걸그룹은 2년 6개월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의 음악 시장이다. 최근 일본 대중문화에 제3의 한류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탄생할 한일 합작 걸그룹이 일본 내 K팝 열풍에 불을 더욱 지피는 팀이 될 수 있을지, 레드오션인 국내 걸그룹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 프로듀서님! 당신의 소녀에게 꼭 투표하세요!" 엠넷 '프로듀스 48'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던진 흥미로운 제안은 이번에도 먹혀들었다. '프로듀스' 시리즈의 세 번째 시즌 '프로듀스 48'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CJ E&M과 닐슨 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소비자 행동기반 영향력 측정 모델인 콘텐츠과외지수(CPI) 6월 2주차(6월 11~17일) 순위에서 2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tvN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뒤를 잇는 기록이자 '프로듀스 48'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CJ E&M과 닐슨 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소비자 행동기반 영향력 측정 모델인 콘텐츠과외지수(CPI) 6월 2주차(6월 11~17일) 순위에서 2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tvN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뒤를 잇는 기록이자 '프로듀스 48'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CJ E&M과 닐슨 코리아가

프로그램의 서사가 미야와키 사쿠라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프로듀스 48'이 아니라 '사쿠라듀스 48'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3회 이후부터는 CJ 계열 스톤뮤직 소속 장규리의 분량이 점차 늘어나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분량은 곧 투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분량이 적은 연습생을 응원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힘 빠질 수 있는 지점으로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종반까지 꾸준한 관심을 얻길 바란다면 향후 이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프로듀스 48'에서 '국민 프로듀서'가 '픽'한 연습생들은 한일 합작 걸그룹 멤버로 선발돼 한일 양국에서 데뷔한다. 앞서 시즌1,2를 통해 결성된 아이오아이(I.O.I)와 워너원이 11인조였던 반면, 멤버수가 1명 더 늘어난 12인조 걸그룹이 탄생한다. 계약 기간도 늘어났다.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의 활동기간은 각각 8개월과 1년 6개월 정도였는데 이번 시즌을 통해 만들어진 걸그룹은 2년 6개월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의 음악 시장이다. 최근 일본 대중문화에 제3의 한류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탄생할 한일 합작 걸그룹이 일본 내 K팝 열풍에 불을 더욱 지피는 팀이 될 수 있을지, 레드오션인 국내 걸그룹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단순히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서사가 미야와키 사쿠라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프로듀스 48'이 아니라 '사쿠라듀스 48'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3회 이후부터는 CJ 계열 스톤뮤직 소속 장규리의 분량이 점차 늘어나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분량은 곧 투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분량이 적은 연습생을 응원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힘 빠질 수 있는 지점으로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종반까지 꾸준한 관심을 얻길 바란다면 향후 이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또 자체 최고” ‘라이프 온 마스’에 빠져드는 이유



'라이프 온 마스'가 날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OCN 최고 시청률 기록을 넘보고 있다. 지난 1일 밤 10시20분 방송된 OCN 주말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극본 이대일 연출 이정효) 8회는 케이블, 위성, IPTV 통합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이 평균 4.7%, 최고 5.1%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경신했다. (닐슨코리아 제공/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라이프 온 마스'는 1회 2.1%로

출발해 꾸준한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흥행에 가속도를 붙였다. 8회에서 마침내 4%대 중반을 넘어선 상황. '터널'이 기록한 OCN 채널 최고 시청률인 6.49%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라이프 온 마스'는 핀란드 현실 인지할 수 없는 1988년, 기억을 찾으러 2018년 형사가 1988년 형사와 만나 벌어지는 신나는 복고 수사극 드라마이다. 기존에 수없이 등장한 타임슬립드라마의 하나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원작이나 유사 장르가 언급되지 않을만큼 수준급의 완성도의 작품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동명의 원작 영국 드라마를 이름만 바꿔서 내놓는 리메이크작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매끄럽게 각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성시라는 가상의 지역을 배경으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1988년 그립은 정겹고 푸근한 인상을 준다.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은 위화감없이 펼쳐져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원작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강현 인질극 등 한국 현대사에 기록된 굵직한 사건들을 연상하게 하는 등 로컬라이즈된 흐름이 자연스럽다. 특히 한태주의 어린 시절 기억을 되짚어가는 큰 줄기의 이야기와 한 회 마다 등장하는 다른 사건들의 연관성이 드라마 때마다 추리의 짜릿한 쾌감을 안긴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더할 나위 없다. 한태주 역의 정경호는 순식간에 30년 전 상황으로 빠진 혼란스러운부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비밀의 퍼즐을 맞추는 복잡한 과정 등을 밀도 높은 연기력으로 표현해낸다. 그 사이 박성웅과 보여주는 브로맨스 케미스트리나 차진 코믹 연기 호흡도 좋다. 전작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이은 또 하나의 히트작을 만들고 있다. 박성웅이 맡은 강동철 형사도 큰 체구에서 오는 위압감과 무지막지한 수사방식은 한태주와 대비돼 보는 재미를 더한다. 힘이 넘치더라도 어딘가 허술한 허당스러운 모습이 드라마를 때 시청자들은 웃음이 터진다. 또 친절한 듯 뽀루뽀한 듯 독특한 화법의 윤성경 고아성과 1988년 이기에 존재 가능했던 '무례한 형사 오대환 경찰서의 순정과 마네 형사 노중현까지, 인성서부경찰서 구성원의 캐리커가 쌓여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 걸그룹 마마무 '장마' 음원차트 정상



걸그룹 마마무가 일곱 번째 미니 앨범 '레드 문(Red Moon)'의 선공개 곡 '장마'로 음원차트를 석권했다. 마마무는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 '장마'를 기습 공개한 후, 주요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마마무의 '장마'는 지니뮤직, 빅스, 엠넷, 올레뮤직, 몽키3 등 주요 음원차트 5순데 1위에 올랐으며, 멜론 2위를 차지하는 등 새 미니앨범 '레드 문(Red Moon)'의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마마무는 휴일 기습 발매에도 불구하고 1위를 휩쓸며 '윈들맘무'의 저력을 과시했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공개 5시간만에 1위를 차지한 마마무의 '장마'는 걸그룹 최초 신곡이 곡이 멜론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마마무의 '장마'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장마'로 떠올랐다. '장마'는 감미로운 미디엄 알앤비 곡으로 촉촉한 일렉기타 리프에 스며든 멤버들의 매력적인 음색이 돋보인다. 비 오는 날 샌치해지는 감성을 자극하며 마마무의 보이스가 울컥한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한편, 마마무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일곱 번째 미니앨범 '레드 문(Red Moon)'으로 본격 컴백한다.

###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3일 화요일 (음력 5월 20일)



▶**소망** 양보하면서 순리대로 처신하라. 지나친 경쟁의식은 서로 피해만 초래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만 쌓는다. 4, 5, 11월생 연하나 연상 사람을 사귀면 구설에 오르고, 이별도 예상되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ㄸ, ㄴ, ㅎ 성씨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라.



▶**사계** 일은 하되 이득이 없다. 이렇 수도, 저렇 수도 없어 마음 고생이 크다. 공직, 기술직, 제품업자는 변동하기가 자신 없다. 잘 안되면 4, 6, 8월생은 동업을 생각하라. 배우자로 인해 마음 고생 하겠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라.



▶**황생**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하라. 길이 보인다. 액세서리, 서비스, 음식업 종사자는 자신감을 품고 인내하라. ㄱ, ㄴ, ㅎ 성씨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라. 2, 5, 9월생 주위의 유희에 신중히 대처하라. 투기를 삼가라.



▶**지축** 비밀이 있으면 일찍 당사자에게 털어놓고 의논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다. 마음이 편하면 하는 사업도 번창한다. 1, 3, 6월생은 가정사로 갈등이 크겠으니 매사 조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일에 전념하는 것이 자기발전의 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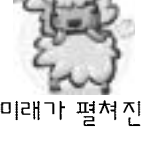
▶**용** 이제껏 그냥 지내왔는데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 하지 마라. 지금 진행하는 그대로 밀고 나가라. 3, 7, 10월생 내 사업은 추진하지 말고 월급장이 생활에 만족해야 한다. 투기업은 잠시 중단하라.



▶**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순간순간 생기고 있다. 흐름을 잘 포착해 결정하라. 순간의 선택이 길흉을 가른다. 부부가 떨어질 때가 많았다. 애정이 식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라. 7, 8, 9월생 검은색과 흰색은 나를 나타내는 색이니만큼 길하다.



▶**말** 작은 일인데, 큰일이든 욕심을 부리지 마라.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가짐이야말로 만민을 이끄는 하루를 지속할 수 있다. 작은 일이 큰 일로 발전하지 않는다. 양보하는 미덕이야말로 큰 그릇이 되는 길이다.



▶**염** 해가 구름에 숨고 나오기를 반복하니 웃음과 울음이 교차하겠다. 희망을 품고 힘껏 매진할 때 새로운 진로를 열 수 있다. 현실점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면 반드시 평화로운 미래가 펼쳐진다. 2, 9, 12월생 삼각관계로 고심하겠다. 친구와 의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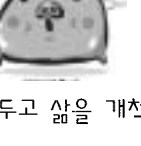
▶**원숭이** 새로운 만남과 과감한 시도로 몇 배 더 기본 좋겠다. 과거 일에 연연하면 나를 소심하게 만든다. 희망을 갖고 출발하라. 1968년생 ㄸ, ㄴ, ㅎ 성씨는 한꺼번에 큰 욕심을 부리 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하라. 장래에 더 큰 이익을 본다.



▶**닭** 현재 추진하는 일은 금전적인 고통이 크나 참고 인내하며 과감히 추진할 때 밝힌 만큼 거둔다. 3, 8, 11월생 괜한 일에 신경 쓰다 주관까지 흔들릴 수 있다. 주의하라. ㄸ, ㄴ, ㅎ 성씨 상대를 믿는 만큼 한 길만 생각하고, 바로 서라.



▶**개** 사방을 둘러보고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 ㄱ, ㄴ, ㅎ 성씨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 시간이 지체돼 뜻밖의 고민까지 생긴다. 2, 4, 8월생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니 뜻이 이뤄진다. 애정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한다.



▶**돼지** 마음의 번민을 잘 견뎌내야 앞으로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1959년생 ㄸ, ㄴ, ㅎ 성씨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 위치를 확고히 다지라. 2, 5, 7월생 애정은 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삶을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